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¹⁾

*Trends in Elderly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1994~2011*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년기는 은퇴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소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년기 가족의 의미와 역할은 경제 및 신체적 부양의 의미와 함께 심리·사회적지지 및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본 글에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약 18년간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와 기능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의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중심에서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독신가구인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세대와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부양은 상당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 정책에서는 노인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특히 농어촌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로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노년기는 은퇴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소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년기 가족의 의미와 역할은 경제 및 신체적 부양의 의미와 함께 심리·사회적지지 및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가족과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리고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혼자 또

는 노부부 만이 거주하는 노인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점차 자녀와 거주하기 보다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 즉 공간적 측면에서 자녀세대와 비동거하는 노인의 증가는 노년기 가족으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 역할 감소를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약 18년간 노인의 가족²⁾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노

1) 본 글은 노인실태조사 각 년도(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의 자료 분석을 통해 작성됨. 년도별 노인실태조사의 실시주체는 다음과 같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년, 1998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2011), 보건복지부·계명대산학연구협력단(2008).

인과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노인의 가족 형태와 기능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 가족 형태의 변화

우리사회의 노인 가구형태는 지난 18년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 노인 중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은 54.7%였으나 2004년에는 38.6%로 약 1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노인 중 27.3%만이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1994년 26.8%에서 2004년 34.4%, 2011년 48.5%로 약 18년동안 21.7%포인트 증가하였다. 노인독신가구는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로 2004년 이후 노인의

약 20% 가량은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독신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노인 가구형태의 주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유형에서 노인 혼자 또는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는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도시지역 노인은 1994년 62.8%가 자녀동거가구였으나 2004년 42.2%로 20%포인트 낮아지며, 2011년 32.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농어촌 지역은 1994년 자녀동거 비율이 44.1%였으며 2004년 30.9%, 2011년 17.1%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 도시지역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자녀동거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그 이후 비교적 감소속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감소 속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 노인의 가구 형태의 변화: 1994~2011년

(단위: %, 명)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가구 유형	노인독신	13.6	17.9	20.6	19.7	19.6
	노인부부	26.8	27.9	34.4	47.1	48.5
	자녀동거	54.7	48.6	38.6	27.6	27.3
	기타	4.9	5.5	6.4	5.6	4.6
전체		100.0 (1,371)	100.0 (2,372)	100.0 (3,278)	100.0 (10,798)	100.0 (10,675)

2) 가구(household)와 가족(family)의 개념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은 결혼,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되며 영구적 관계를 유지하는 1차적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집단으로 규정됨. 따라서 가구의 개념은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혼자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존재하지만, 가족의 개념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2인 이상의 집단으로 볼 수 있음. 본 글에서는 노인의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한 개념에서는 '가구'의 용어를 사용하며, 동일 가구는 아니지만 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에서는 '가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도시지역은 1994년 10.9%에서 2004년 19.2%, 2011년 17.6%로 나타나며, 농어촌 지역은 1994년 17.1%에서 2004년 23.5%, 2011년 23.9%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부부가구는 도시지역은 1994년 20.8%에서 2004년 31.7%, 2011년 45.3%로 크게 증가하며, 농어촌은 1994년 34.5%에서 2004년 40.3%, 2011년 55.2%로 증가한다. 도시지역의 노인독신가구가 200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는 70세 이전의 노인수가 증가함으로써 노인 중에서 독신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농어촌 지역의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은 1990년대 이전에 크게 나타나며, 그 이후 안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의 형태는 1990년대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노인단독(노인독신,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 속도가 원만히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가구 구성에 대한 가치관이 핵가족으로 정립되면서 급격히 자녀동거세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가구형태는 성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11년 남성 노인의 64.5%는 노인부부가구이며, 23.9%는 자녀동거가구인 반면, 여성 노인은 36.2%는 노인부부가구이며, 29.5%가 노인독신가구, 29.9%가 자녀동거가구이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일반적으로 부부구성에서 남성이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 남성 노인이 유배우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4년 남성노인의 47.3%는 노인부부가구이며, 42.8%는 자녀동거가구의 형태를 보였으며, 노인독신가구는 6.1%였다. 최근에는 1994년과 비교할 때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노인부부가구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독신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1994년에는 노인독신가구가 18.3%, 노인부부가구가 13.9%, 자녀동거가 62.2%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노인의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약 30%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노인부부가구 비중은 2008년 이후 약 35%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녀동거 비율은 1994년 62.2%에서 2011년

표 2. 노인의 지역별 가구형태 변화: 1994~2011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전체	56.9	43.1	63.0	37.0	67.9	32.1	68.6	31.4	68.0	32.0	
가구 유형	노인독신	10.9	17.1	16.8	19.8	19.2	23.5	16.5	25.9	17.6	23.9
	노인부부	20.8	34.5	23.8	35.1	31.7	40.3	44.3	52.2	45.3	55.2
	자녀동거	62.8	44.1	52.8	41.5	42.2	30.9	33.1	17.1	32.1	17.1
	기타	5.5	4.2	6.6	3.7	6.9	5.3	6.0	4.9	5.0	3.8

29.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즉, 노인의 가구구성 변화는 성별 차이를 보인다. 남성노인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독신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독신가구의 비율은 과거 18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과거와는 달리 자녀 동거 가구를 구성하기 보다는 노인 부부가구로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경우 과거에는 노인부부가구로 생활하다가 남성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점차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노인독신가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배우자 유무는 노인의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노년기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994년에는 51.3%가 노인부부가구였으며, 43.9%가 자녀동거가구였으나, 2011년에는 69.8%가 노인부부가구이며, 24.7%가 자녀동거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에 비해 노년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노부부만의 가구를 선택하고 있다. 노년기 배우자가 없는 무배우 상태인 노인의 경우 1994년 독신노인이 26.7%이며, 자녀동거 노인이 66.7%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혼자살기 보다는 자녀와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표 3. 노인의 성별 가구 형태 변화: 1994~2011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39.7	60.3	36.9	63.1	38.3	61.9	42.6	57.4	43.1	56.9	
가구 유형	노인독신	6.1	18.3	6.9	24.3	6.6	29.3	6.2	28.9	6.5	29.5
	노인부부	47.3	13.9	48.3	16.0	54.5	22.0	65.2	34.8	64.5	36.2
	자녀동거	42.8	62.2	40.8	53.2	33.4	41.8	24.1	30.0	23.9	29.9
	기타	3.8	5.7	3.9	6.5	5.5	6.9	4.5	6.4	5.0	4.3

표 4.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구형태 변화: 1994~2011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전체	56.6	43.4	49.2	50.8	54.8	45.2	64.5	35.5	68.7	31.3	
가구 유형	노인독신	0.6	26.7	1.6	33.7	0.6	44.8	0.0	55.6	0.1	59.6
	노인부부	51.3	0.2	56.8	0.0	62.8	0.1	72.9	0.0	69.8	0.1
	자녀동거	43.9	66.7	37.2	59.6	32.1	47.5	23.1	35.9	24.7	35.8
	기타	4.2	6.4	4.4	6.6	5.4	7.6	4.1	8.5	5.4	4.5

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혼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59.6%가 독신으로 살고, 35.8%만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에 따른 가구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의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4년 초기 노인인 65~69세 노인 중 자녀 동거비율은 47.6%이며, 80세 이상에서는 69.4%이지만, 2011년에는 28.5%에서 34.9%로 증가폭이 적게 나타난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98년까지는 노인의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증가한다. 2011년 조사에서는 65~69세의 10.5%가 독신이며 80세 이상에서는 32.3%로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2004년 조사에서는 75~79세에서 노인독거비율이 가장 높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

며, 자녀동거비율은 80세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80세 전후에서는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배우자 사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혼자 또는 노인 부부의 형태에서 자녀동거의 형태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자녀동거형태로의 변화정도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동거 형태로 변화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독신가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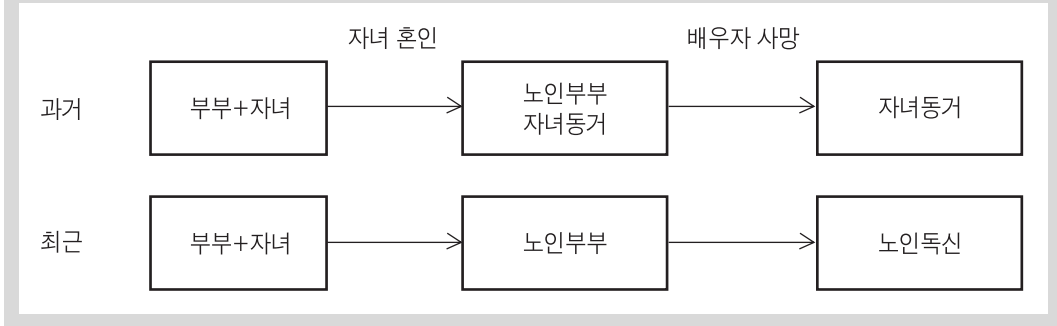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 과거 18년간 우리사회의 노인의 가구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0년 이전까지 자녀의 결혼 또는 독립으로 인해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후 배우자 사망 또는 건강악화로 인해 자녀동거 가구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0대 이후부터는 자녀의 결혼 또는 독립이후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형태를 취하게 되고, 배우자 사망이 있는 후에는 자녀동거가구로 변화하기 보다는 노인독신의 형태로 전환되는

표 5. 노인의 연령별 가구 형태 변화: 1994~2011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체	41.5	29.7	16.5	12.4	38.1	29.2	18.1	14.7	37.8	28.5	17.5	16.2	38.0	28.4	17.6	16.0	29.8	30.4	22.6	17.3	
가구 유형	노인독신	11.6	16.9	13.4	12.6	16.6	21.2	17.5	15.4	16.3	20.9	27.6	22.7	12.6	19.6	27.6	28.3	10.5	17.5	24.8	32.3
	노인부부	36.4	24.7	17.1	12.8	35.7	27.6	24.7	12.4	42.6	36.7	28.1	18.2	55.6	52.1	39.9	25.4	54.5	53.3	48.6	29.2
	자녀동거	47.6	53.0	64.3	69.4	42.6	46.3	52.0	64.5	35.3	35.3	39.7	50.7	26.7	25.0	28.7	33.3	28.5	24.7	23.5	34.9
기타	4.4	5.4	5.3	5.2	5.1	4.9	5.7	7.7	5.7	7.1	4.6	8.4	5.1	3.2	3.7	13.1	6.5	4.5	3.1	3.6	

그림 1. 노년기 인생 사건에 따른 노인가구형태 변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 및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의 증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 가치관 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동되었다고 보여진다.

3. 노인 가족의 기능변화³⁾

노인의 외관적인 가족의 형태, 즉 가구형태는 과거 약 18년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앞서 분석에서 살펴보았다.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는 자녀 동거 비율의 감소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노인 가구, 가족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노인에게 자녀는 여전히 매우 의미있는 가족원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8년간 노인의 주요한 가족원으로서 자녀세대와의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부양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녀와 동거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동거자녀와의 거주거리 변화, 연락과 접촉 빈도 변화, 자녀와의 정서, 도구, 경제적 주고 받음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과거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동거 자녀와의 거주거리는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보 30분 이내의 비율은 20%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비율 또한 2011년 조사결과 24.1%로 노인의 약 절반정도는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의 비율이 20.5%로 약 44.6%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8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이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18년간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비동거 자녀와 1시간 이내에 위치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약 60%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3) 노인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의 범위를 포괄하지만, 본 글에서는 과거 노인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한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또한 노인 가족의 기능변화에서 활용한 자료는 노인실태조사 자료(1994~2011)를 활용하였으나, 분석항목에 따라 일부 년도의 조사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년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을 밝힘.

표 6.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거주거리

(단위: %)

구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도보 30분 이내	20.7	18.7	16.7	19.1
자동차 30분 이내	37.4	40.7	21.3	24.1
자동차 30분~1시간			21.0	20.5
1~2시간	16.0	17.8	17.9	18.1
2시간 이상	25.9	22.1	26.7	18.0
계	100.0	100.0	100.0	100.0

을 볼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가구유형별로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빈도는 1994년에 비해 2004년과 2011년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에서 주 2~3회 이상의 빈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독신가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인 부부가구에서는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 노인의 경우 비동거 자녀와 주 2~3회 만나는 비율은 15.5%, 주1회는 19.3%이며, 노인부부가구는 16.6%와 22.3%, 자녀동거 가구는 13.8%와 16.4%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접촉 이외 전화 등을 통한 연락의 빈도를 살펴보면,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과거 1994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독거노인의 26.9%는 비동거 자녀와 주2~3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43.2%, 2011년 3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

인부부가구, 자녀동거 가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자녀와의 친밀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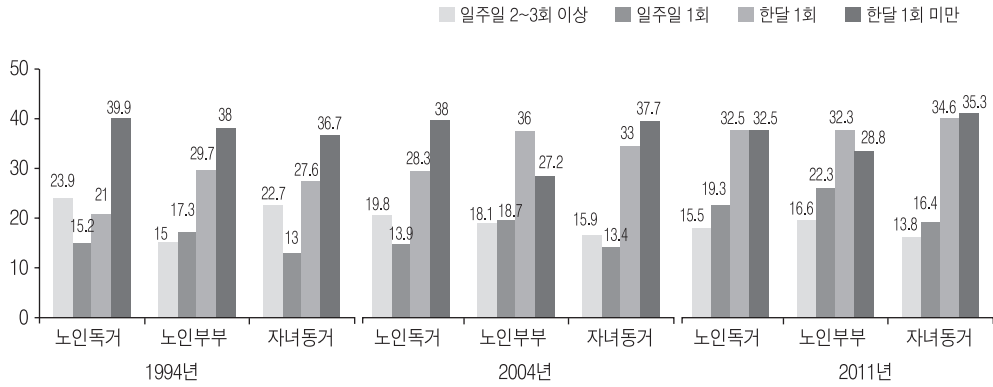
노인의 자녀동거가구 감소가 가족내 노인에게 대한 부양의 감소로 연결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가구형태에 따라 자녀세대와 정서, 가사일 등의 도구적 도움, 수발, 그리고 정기적인 현금 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정도를 살펴 보았다(표 7 참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은 64.8%이며, 비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은 65.3%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동거자녀, 비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유형에서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72.4%와 71.7%로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에게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보기 또는 가사 등의 도구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로부터 받는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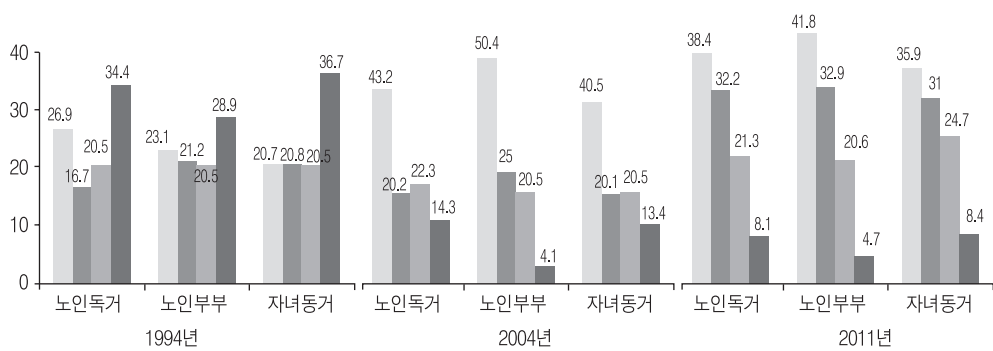
그림 2. 노인 가구유형별 비동거 자녀와 만남과 연락빈도 변화: 1994~2011년

(단위: %)

▼ 노인가구 유형별 자녀와 만남 빈도



▼ 노인가구 유형별 자녀와 연락 빈도



59.2%이며, 비동거자녀로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구의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원 비율은 53.6%로 자녀동거 노인의 동거자녀로부터 받는 비율과 다소 낮지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경우 49.2%인데, 이는 부부노인의 경우 상호 도구적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발 도움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62.3%를 동거자녀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비동거자녀로부터 수발을 받는 비율이 59.0%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도 수발은 50.5%를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 중에서 정기적 현금지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로부터는 40.8%를 받고 비동거 자녀로부터는 23.8%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구의

표 7. 노인의 자녀세대와의 정서·도구·수발·정기적 현금지원의 교환 현황(2011년)

구분	수혜				제공			
	정서	도구	수발	정기적 현금지원	정서	도구	수발	정기적 현금지원
동거자녀	64.8	59.2	62.3	40.8	59.8	61.7	27.9	4.6
비동거자녀	70.2	46.1	49.2	37.0	61.4	11.3	7.7	0.9
노인독거	72.4	53.6	59.0	50.6	57.8	9.6	5.8	0.5
노인부부	71.7	49.2	50.5	38.4	64.9	12.2	8.5	1.4
자녀동거	65.3	34.9	40.8	23.8	57.0	10.9	7.0	0.6
기타	70.7	44.5	42.3	39.3	63.4	12.2	10.8	0.0

경우 비동거 자녀로부터 50.6%,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38.4%가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독신가구인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세대와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적 분리이며, 이는 노인의 자녀세대와의 가족 관계, 그리고 기능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은 자녀세대와 공간적 분리는 이루어졌으나, 연락빈도와 다양한 지원의 교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자녀와 동거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가족 관계와 기능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정책적 제언

과거 18년간 공간적 개념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가족 형태는 자녀동거가구 중심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의

노인단독가구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앞서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 노인층은 자녀와 물리적 공간의 분리는 이루어졌으나, 관계의 측면에서 여전히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인 지지가 유지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적 교류가 이루어짐을 통해 노년기가족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세가지 영역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노인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가족에게 우선적, 또는 전적인 부양 책임을 두기보다는 가족에서는 치매노인과의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인 신체적 수발 등에서 외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간의 지나친 의무감은 오히려 정서적 친밀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⁴⁾ 연구에서 미래 가족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의 의무는 느슨하지만, 정서적 친밀도는 높은(the loose but intimate family) 가족 형태로서,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갈등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무적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은 현 노인복지 정책에서의 주요한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독거노인에 초점화되어있는 실정이다. 독거노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초점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혼자 거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노인부부가구는 가까운 미래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80세 이후의 노인부부가구,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를 돌보는 부부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셋째, 농어촌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독신, 노인부부가구인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 서비스 인프라가 적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의 노인정책은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가 필요로 할 것이다. 본문

4) 여성정책연구원(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